

한라시론



민 무속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사람중심의 풍요로운 제주공동체의 모습은?

민선8기 도정과 12대 제주도의회가 다음 달 정식으로 문을 연다. 새로운 문을 여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상상으로 설레게 하는 일이다. 오영훈 당선인은 사람중심의 풍요로운 제주공동체를 만들 것을 공언한 바 있다. 도민들은 이제 부른 기대를 안고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안전 분야, 가족관계, 여가 만족도, 교육·직업훈련 등 여러 성평등지표 평가에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여성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제주, 정주하고픈 제주의 비전을 품을 때 저출생 시대를 넘어 풍요로운 공동체가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제를 제안한다.

최우선적으로 제주여성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와 공간 확대가 필요하다. 여성일자리정책 전담팀을 만들어 빠르게 변하는 노동시장에 여성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춘 전문적인 진로설계, 취업역량, 창업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특히 맞춤형 증가와 근로문화 변화주체에 걸맞게 성별 근로실태 및 임금공시제 실시, 일·생활균형을 위한 기업의 성평등·가족친화경영을 촉구해

야 할 것이다.
제주사회도 가족규모의 축소, 한부모 가구, 1인 가구 등 가족 유형이 다양해지고 삶의 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확한 실태 파악에 근거한 세밀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가족유형별 부모의 양육역량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과 복리, 권리를 증진시켜 아동청소년 진화도시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생애주기별로 촘촘한 돌봄 생태계를 마을별로 구축하는 동시에 돌봄 종사자의 일의 가치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터전에 정주할 수 있는 마을 환경을 조성하는 일 또한 공동체 형성에 핵심적인 과제이다. 특히 도와 교육청이 파트너십을 구축, 대상별·기관별 성평등인식 교육을 확대해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젠더폭력 예

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청소년과 여성의 건강권이 제고될 수 있는 정책도 더 발굴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주여성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단순 이미지로 소비되는 제주여성이 아닌 역사적 주체로서 제주여성의 노동과 공동체 기여의 역할에 대한 조망작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연구기반을 강화해 글로벌한 위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성평등·가족정책 추진체계의 강화가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12대 제주도의회는 절반 이상의 초선의원(25명)과 2030세대의 입성(3명), 20%를 차지한 여성의원(9명)으로 특징지어진다. 새롭게 구성된 의회가 민선8기 도정과 함께 풍요로운 제주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주기를 도민들은 기대한다.

사설

제주, 부동산 투기 바람 '위험수위'다

제주 부동산시장이 외지인들 수요 급증에 '투기선호 1순위'라는 오명을 우려할 지경이다. 부동산 시장이 코로나19에도 꾸준히 과열된데 이어 최근 부동산 규제에도 외지인들 매수 선호지 역으로 꾸준히 등장해서다. 제주가 부동산 비규제지역이면서 관광지 매력으로 실수요를 넘는 투기수요 탓에 고강도대책을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 분석결과 1~4월 도내 토지 거래량 8607필지 중 외지인 매수는 2890필지(33.6%)였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매매량 5584필지 중 1590필지(28.5%), 서귀포시 3023필지 중 1300필지(43%)가 외지인이었다. 서귀포시지역 매입비중이 무려 40%대에 이른 건 영외교육 도시 수요도 있지만 관광지 투기 수요도 컸다. 주택매매 거래량도 1~4월 3263호 중 921호

(28.2%)를 외지인들이 사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외지인들 주택 매입비중이 2019년 22.8%(1824호), 2020년 25.9%(2693호), 2021년 29.0%(3497호)로 급증세인데다 작년 역대 최고치여서 올해 경신 여부도 주목된다. 투기세력이 최근 부동산규제에도 제주시장에 대한 높은 선호도 탓에 기록을 갱 가능성도 있다.

외지인들이 제주 땅과 집을 계속 사들이는 건 지역사회 여러 문제를 키운다. 이미 투기세력 특세가 작년 전국 최고 아파트 가격 상승률, 실거래가 위반 증가 등 여러 부작용을 노골했다. 전국과 달리 여전한 아파트·땅값 상승 동향은 향후 대응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관계당국은 부동산시장 과열·투기바람에 엄정 대응하고, 투기세력 색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하수 오염 갈수록 광범위 확산문제다

제주 지하수에 대한 반감지 않은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하수 관련 나왔다 하면 심층팔 수 오염 얘기가. 제주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하수 오염원으로부터 위험받고 있다. 지하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제주 시는 한경지역 지하수 관정의 질산성질소 농도가 먹는물 기준치(10mg/L)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이 한경지역 지하수의 수질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지하수 관정 230곳에서 실시한 수질조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조사 결과 질산성질소 오염도는 상반기(3-5월) 9.6mg/L, 하반기(8-10월) 10.2mg/L로 강우량이 많은 하반기에 농도가 0.6mg/L 더 높았다. 표고별 질산성질소 농도를 보면 해발 50m 이하 11.3

mg/L, 50~100m 10.7mg/L, 100~150m 9.0mg/L, 150m 이상 구역 4.2mg/L이다. 표고 150m 이하 지역은 지하수 오염이 상당 명수인 지하수가 갈수록 오염원으로부터 위험받고 있다.

한경지역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된다. 양돈장이 밀집한 한림지역보다도 질산성질소 농도가 더 높기 때문이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이 2019년 상반기 한림지역 지하수 관정 166곳에서 수질조사 결과를 보면 확연히 비교된다. 질산성질소 농도 평균치가 6.1mg/L로 나왔다. 한경지역의 질산성질소 농도가 한림지역보다 3.5mg/L 가량 더 높다는 사실이다. 화학비료 영향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오염원의 원인을 보다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지하수가 더 오염되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겠는가.

편집국 25시

한라체육관 25시



김 도영
행정사회부 기자
doyoung@halla.com

지난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가 끝난 이후 제주시 한라체육관으로 차량들이 들어왔다. 커다란 투표함을 내린 관리원과 경찰 2명이 투표함과 한 몫처럼 붙어 있다. 접수를 마친 뒤에야 숨을 돌린다.

건강한 청년들이 연신 투표함을 들고 체육관 안으로 들어온다. 반소매 차림에도 얼굴엔 땀이 흥건하다. 투표함을 옮기고 봉인을 해제해 투표용지를 쏟아낸다.

긴 책상에 앉은 개표 사무원들이 색깔별로 일사불란하게 투표용지를 정리한다. 차곡차곡 쌓인 투표용지는 고무줄에 묶여 다음 책상으로

넘어가 투표지 분류기로 들어간다. 집계 내역이 맞는지 재차 검토하고 한 표라도 문제가 있으면 꼼꼼히 기록한다. 여러 단계의 확인을 거쳐 선관위원장의 검토까지 통과하면 그 결과가 현황판에 게시된다. 개표사무원 500명과 경찰·소방 등 관계자, 개표 참관인, 개표 관람인 등 수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민

모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열정을 쏟았다. 이런 상황을 알리 없는 누군가의 장난 같은 무효표는 애석했다. 모든 후보자에 기표된 투표용지부터 덩그러니 빈 투표용지까지 '일부러'라는 생각이 들만큼 놀라운 형태의 무효표들이 있었다.

제주 선거인수 56만5084명 중 도지사 선거에 대한 무효표는 4349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기권은 26만4945표로 집계됐다. 도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효표는 7783표, 기권은 26만4960표였다. 그렇게 관심과 책임에 대해 생각했던 밤을 보냈다.

뉴스-in

여름철 물 수요 급증 대비 기동반 운영

동·서부 나눠 6명 배치

양심양산 대역소 19곳

○...제주시가 폭염 등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물 수요가 급증하는 것에 맞춰 수압, 단수, 수질 등에 따른 생활 민원 증가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현장 대응 기동반을 운영.

이번 현장 대응 기동반은 동·서부로 나눠 직원 6명을 배치했는데 제주시는 기동반 운영으로 상수도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긴급 민원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올해 5월 말 기준 상수도 긴급 수리 건수는 밸브, 내부, 급수 중단 등 1949건에 이르는데 지난해에는 4938건, 2020년에는 4040건의 상수도 관련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 전선회기자

○...서귀포시가 여름철 폭염을 대비, 지난해 첫 시행 이후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에 따라 10일부터 양심양산 대역소 19곳을 운영할 계획.

시는 폭염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시청 본관과 별관을 비롯해 17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양심양산 대역소를 비치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양산 대역을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김영철 시 안전총괄과장은 "양산을 쓰면 직사광선과 자외선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체감온도를 10°C 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어 폭염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아울러 주요 도로 횡단보도 및 교통섬 등에 그늘막 118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 백국기기자

부고
현충회 아버지 연주현공 의봉(향년 80세)께서 서기 2022년 6월 7일 10시 3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2년 6월 9일(목요일)
▶발인일시: 2022년 6월 10일(금요일) 오전 9시
▶발인장소: 중앙병원(이호동 소재) 장례식장 1분향실
▶장 지: 아흔아홉골 선영
부인 송춘자
아들 현충희 며느리 변연순
딸 현은숙 사위 안중관
※ 연락처 : 현충희 010-8388-5030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골묘목
장마때 분양
유라조생 2년생
천혜향 2년생
감평 2년생
황금향 5년생
천혜향 3,4년생, 황금향 3,4년생
한라봉엠 3,4년생, 남잔해 3,4년생
부리는 5년생 양묘계약 합니다.
※ 분양은 2022년 10월 30일
매월을 상귀리 716번지 870평
한림종묘사
010-3690-2453, 010-8820-5769

감골 신제품 분양
2022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더프린스, 제리몬(레몬), 한라봉, 탐나는봉, 사랑향(신종중천혜향), 나스미(카라향), 달빛1호, 병유자, 아파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공천 오하라베니(공천베니), 히로시마 7호, 일남1호, 유라조생 접수 분양
오하라베니 자연종묘 착과 모습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감골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적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각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라실생 하우스골 많은 견학바랍니다.
·유라조생 1, 2년생 ·하굴 4, 8년생
·천혜향 1, 4년생 ·공천 3, 5, 8년생
·레드향(무독) 1, 4년생 ·공천 베니(오하라베니) 2,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레몬 3년생
·고립조생 5년생 ·황금향 1, 4년생
·한라봉 1, 2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속도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